

삶의 質의 調査에 관한 研究

姜 東 植*

〈 目 次 〉

- I. 序 論
 - 1. 研究의 目的
 - 2. 研究의 對象 및 方法
- II. 삶의 質의 意義
 - 1. 삶의 質의 意義
 - 2. 삶의 質의 重要性
- III. 삶의 質의 調査·測定方法
 - 1. 包括的 測定手段으로서의 삶의 質 指標
 - 2. 삶의 質의 主觀的 意義와 調査·測定方法
 - 3. 삶의 質의 客觀的 意義와 調査·測定方法
- IV. 結 論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근래들어 활발히 論議되고 있는 人間의 삶의 質이란 무엇인가? 개인 및 사회의 삶의 質은 무엇에 의하여 評價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은 古來로부터 많은 학자들에게 의해 問題가 提起되어 왔고, 思惟되어 왔다. 그러나 人間의 삶의 質에 대한 經驗的이고 科學的인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最近의 일이다. 世界 第二次大戰이 끝나고, 美國 등 西歐 先進國들이 그동안 이룩한 經濟成長으로 인하여 國家의 살림살이나 國民의 생활이 豊饒로워진 1960년대 中盤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

*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副教授

이다 1). 즉, 선진국들이 經濟成長으로 생활이 豊饒로워 지면서 인간의 慾求體系와 價値體系에 變化를 가져왔고, 이러한 변화는 삶의 量的 側面에서 質的 側面으로 移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나 국가에서도 삶의 質을 측정하는 指標, 즉 社會指標 2)의 準據概念으로 60년대까지는 生活水準(Level of Living : LOL)이라는 말을 사용하다가, 70년대 이후부터는 삶의 質(Quality of Life : QO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 이는 60년대가 經濟成長을 중심으로 하는

- 1) 인간생활의 質的 價値(Qualitative Value of Life : QVL), 즉 가치와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깊은 관심은 선진국들이 경제성장으로 국가가 富強해진 60년대에 들어와 管理科學(Management Science)이 발전되면서부터로 보고 있다. C. W. Churchman, Challenge to Reason, McGraw-Hill, New York, 1968. 또한 관리과학이 발전되면서 美國의 행태과학자들은 1964년 사회지표에 관한 편람을 발간하면서 사회개발지표란 "사회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규범적인 가치기준에 의하여 실증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욕구수준(욕망)에 대비한 현재상태(실체)의 반영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도 개인의 끝 없는 恣意的인 욕망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인 어떤 기준에 의하여 승인될 수 있는 욕망, 즉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바라며(욕구수준의 구체성과 객관성)"라는 과제가 표현되어야만 되고 이에 비하여 실제로 "우리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방향이 함축된 현재의 실제상태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What Indicates What? World Handbook of Political and Social Indicator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8, December, 1964, P. 29. P. W. House "How do We know Where We are Going" Presented to a Seminar on Multiple Criteria Decision-Making at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October, P. 142. 강동식, 삶의 質과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6. PP. 16-19.
- 2) 이 글에서 사용하는 社會指標의 "社會"란 뜻은 經濟指標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狹義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통합적 개발체제로서의 사회개발지표 및 사회개발목표 등의 의미로서 "社會的"이라는 형용사가 사용될 때는 經濟, 社會, 環境 등을 포괄하므로 후자인 廣義의 개념을 뜻하고 있다. 김영섭, 사회계획개발론, 법문사, 1985, PP. 24-25.
또한 삶의 質 지표와 사회지표의 용어를 혼용하여 쓰고 있는데 兩者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회지표는 사회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반해, 삶의 質 지표는 개인이나 사회의 幸福感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포괄성을 띠고 있다. 즉 전자가 微視的(macro)인 측면이라면, 후자는 巨視的(micro)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강동식, "삶의 質 指標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논문집(제33집), 1991, PP. 438-439. 재인용
- 3) Biderman은 1966년 발표한 그의 논문에서 "사회지표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회의 여러 조건을 제시해 주는 計量的 자료(Quantitative Date)"라고 정의하면서 "生活의 質"(QOL : Quality of Life)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Albert D. Biderman, "Social Indicators and Goals", Chp. 2, R. A. Bauer(ed), Social Indicators, MIT Press, 1966, P. 69.

그후 "生活의 質"에 관한 연구는 1972년 美國의 環境保護廳(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調查研究班(Office of Research and Monitoring)에 의하여 "QOL" 개념이 더욱 발전, QOL 構成要素를 경제적 환경, 정치적 환경, 보건 및 자연환경까지 확대했다. 이는 "삶의 質"을 測定하기 위해 "自己期待成就를 위한 努力尺度"(self-anchoring striving scale)의 技法을 개발한 Cantril 과 Roll에 힘 입은바 크다.

“GNP 時代”라면, 70년대는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脫 GNP 時代”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自由民主主義 국가에서 構成員에 대한 삶의 質 문제가 福祉政策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자, 共產主義 국가에까지 構成員의 삶의 質 문제가 과급됐으며⁴⁾, 90년대 中盤에 들어서는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삶의 質의 문제를 人間安保(Human Security)의 개념으로 조작 사용하기에 이르렀다⁵⁾.

Galbraith의 주장과 같이 “경제성장의 척도는 얼마나 생산하는 가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활이 견딜만 한가 또는 생활에 즐거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라는 말과 같이 삶의 質의 개선만이 최고의 목표가 되었다⁶⁾.

현대인은 누구나 뚜렷한 삶의 목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욕구체계와 가치체계도 다르다. 때문에 한 국가의 富를 측정하는 GNP는 생산고의 척도는 될지 모르지만 인간이 회귀하는 욕구충족 이나 복지의 척도는 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사회개발정책과 삶의 質을 나타내는 지표가 필요하게 된 것이며, 지표를 통해 경제활동의 최종목표로서, 행동의 최대과제로서, 국가 또는 지역개발정책의 최종 평가기준으로써, 인간의 삶의 質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삶의 質이란 용어자체도 근래들어 사회학, 심리학 등 모든 사회과학에서는 주관적 안녕복지(Subjective Well-Being), 삶에 대한 만족도(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인간안보(Human Security)⁷⁾, 인간발전(Human Development)⁸⁾ 등 다양한 용어로 연구되고 있으나 본 글에서는 삶의 質이라는 용어를사용키로 한다.

이 글은 근래들어 個人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정책수립과정에서 자주 거론되는 삶의 質의 意義와 삶의 質의 接近을 위한 調査方法 등을 體系化함으로써 社會福祉政

4) 申道澈, 공산권의 삶의 質 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제4권 제1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2. 3. P. 41.

5) 삶의 質의 용어를 人間安保라는 용어로 조작 사용한 것은 1994년 UN의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 이다. 인간안보란 지금까지 국가나 영토에 국한되어 왔던 안보의 개념을 사회개발에 의한 개인과 국민의 안보, 즉 衣食住라는 인간의 기본생활의 확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비롯한 정치적 권리, 고용 및 소득 확보를 포함한 경제적 안정 등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삶의 質과 인간안보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中央日報, 貧困犯罪 세계적 차원 해결, 1995. 3. 6(5면).

6) J. K. Galbraith, Economics, Peace and Laughter(New York : American Library, Inc., 1972), PP. 15-31.

7) 삶의 質을 인간안보라는 용어로 조작한 것은 1994년 UN이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 이다. 中央日報, “貧困, 犯罪 세계적 차원 해결”, 1995. 3. 6(5면).

8) 이 용어는 1995. 3. 6-12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UN 사회발전 세계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金永燮, 후기산업사회의 삶의 質의 문제, 대세연구소(제2회 대세포럼, 1995. 11. 8. 세종문화회관), PP. 8-9.

策의 방향을 제시 밝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을 뒀다.

2. 研究의 對象 및 方法

삶의 質의 연구대상은 인간생활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활해 나가는 데 直.間接으로 영향을 미치는 個人, 組織, 環境 등 3가지 측면에서 삶의 質의 접근을 시도했다. 그 이유는 個人, 組織, 環境 등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면, 삶의 質의 意義와 調査, 測定方法 導出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연구의 한계상 여러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個人, 組織, 環境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변수를, 크게 主觀的(心理的) 側面과 客觀的 側面に 초점을 맞추어 삶의 質의 意義와 調査, 測定方法을 接近해 보았다.

研究의 方法으로는 文獻的 接近으로 삶의 質의 일반이론을 도출해 보았으며, 인간의 삶(생활)을 하나의 體制(system)로 볼 수 있기 때문에 體制分析을 통해 삶의 質의 重要構成要素와 下位構成要素로 區分, 이를 토대로 삶의 質을 接近해 보았다.

II. 삶의 質의 意義

1. 삶의 質의 理論的 基礎

삶의 質이란 人間의 삶에 있어서 개인의 심리적 상태 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 마다 다양하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Diener는 삶의 質의 개념을 크게 1) 외적 기준이나 조건으로, 2) 개인 자신의 삶에 대해 내리는 認知的(cognitive) 評價로, 3) 개인의 情緒的 측면 등 3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⁹⁾.

Diener의 1)의 유형은 인간의 삶의 質은 주관적인 심리상태가 아니라 어떤 바람직한 屬性 및 환경적 조건을 소유한 삶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바람직한 외적 기준은 소득, 건강상태, 여가시간, 교육수준 등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신분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것에서부터 미덕이나 신성함과 같은 정신적인 가치 등 다양한 것을 말한다.

삶의 質을 外的 기준에 의해 정의한 학자는 古代 그리스의 Aristotle(384-322 B.C)를 들 수 있다¹⁰⁾. 그는 인간의 幸福이 덕있는 삶을 통해 얻어진다고(여기서 덕있는 삶이 반드시 즐거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는 것이다. Aristotle은

9) E. Diener,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984, PP. 42-575.
趙明翰 외, 청소년의 삶의 質, 사회과학과 정책연구(제16권 제2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94. 6., PP. 63-67, 재인용.

10) 앞예논문, PP. 64-65. 참조.

美德을 인간의 삶이 판단되는 규범적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복(Eudaemonia)은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행복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가치체계로부터 판단된 바람직한 상태로 보고 있다. 이러한 행복의 정의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관찰자의 가치체계가 중시되는 규범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삶의 質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외적인 삶의 質의 기준은 간접적인 기준일 뿐, 직접적인 기준은 개인이 삶에 內在하는 주관적인 것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고 있다.

또 한 Rescher도 삶의 質의 중심이 되는 인간적 행복요소를 1) 개인적 안녕, 2) 대인관계에서 충족되는 만족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¹¹⁾.

Diener의 2)의 입장은 행복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라는 것. 이러한 입장은 “스스로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先賢의 말에서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脈絡에서 申道澈 교수는 삶의 質이란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데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²⁾.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삶의 質은 삶에 대한 만족도로 볼 수 있고, 행복을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가치 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들어 삶의 質을 정의하는 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Diener의 3) 번째 입장은 Bradburn의¹³⁾ 주장을 빌어 “행복은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다. 주관적 행복감은 긍정-부정의 연속선상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⁴⁾.

또한 玄旰錫은¹⁵⁾ Rescher의 분류방식을 빌어 삶의 質을 2가지의 心理的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하나는 주관적 요소가 강한 最高(aristo)라는 측면, 즉 優越感. 또 하나는 快樂(hedonic)이란 측면, 즉 일반적인 滿足感 특히 행복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最高라는 측면은 사회 전체적인 평가기준의 存在와 客觀性, 妥當性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質의 접근에서 제외시키고, 快樂 즉 幸福의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또 행복의 요소를 1) 一般的 幸福要素(consensus happiness requisites), 2) 個性的 幸福要素(idiosyncratic

- 11) Nicholas Rescher, *Welfare : The Social Issues in Philosophical Perspective* (Pittsburgh :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2), PP. 69-71. : 安秉永 외, *발전행정론(제2全訂版)*, 서울 : 법문사, 1988, PP. 270-271. : 玄旰錫, *생활의 質의 측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제14권 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6, P. 328. 再引用.
- 12) 신도철, *한국인의 삶의 質에 관한 대연구*, 정경문화, 1981, 5., PP. 26-47.
- 13) N. M. Bradburn,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 Aldine, 1969.
- 14) M. A. Okun, "Life Satisfaction." in G. L. Maddox(ed.),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 Springer), 1987, PP399-401., 趙明翰, *전계서*, PP. 64-65. 再引用.
- 15) 현오석, *전계서*, PP. 327-328. 再引用.

happiness factors), 3) 充滿感(hedonic mood) 등 3 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첫 번째의 일반적 행복요소로는,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人間交互的 행복요소로 재산 상태, 물질, 사회적, 정치적 환경의 質과 지위, 존경, 직무만족, 자유, 여가의 활용 등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두 번째의 개성적 행복 요소는 개인의 욕구와 기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각 개인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되는 요소와 이들 요소의 소유정도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세 번째의 만족감은 知的理解(intellectual apprehension) 보다는 感情(feeling)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의 그때 그때의 상황에서 느끼는 滿足(euphoria), 不滿足(dysphoria) 등의 심리적 상태로, 여기에는 短期的, 一時的(술(酒)이나 痲藥 등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 滿足感이라는 것.

또한 삶의 質의 접근을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 및 자유로움이라는 견해도 있다.

Stock, Okun, Benin¹⁶⁾ 는 삶의 質 또는 主觀的 安寧福祉를 1) 幸福感(Happiness), 2) 士氣(Morale), 3) 滿足感(Satisfaction) 등 3 가지 측면에 의해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幸福感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비율을 의미 한다는 것. 士氣는 자신의 삶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낙관의 정도로 정의되며, 滿足感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만족하는 정도를 지칭한다는 것¹⁷⁾.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삶의 質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기준은 다양하나 대체로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에 의해 판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삶의 質 또는 행복은 1) 주관적이라는 것, 2) 행복은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반영한다는 것, 3) 행복의 핵심은 개인의 삶에 대한 통합적 판단에 의해 정의된 다고 할 것이다.

2. 삶의 質의 重要性

美國 등 선진국가에서 삶의 質에 대한 관심이 高調되기 시작한 것은 앞서도 언급 했지만 1970년대 이후, 즉 後期産業社會로 이전되면서 이다. 後期産業社會란 경제개발의 시대가 아니라 社會開發의 시대라 할 수 있다. 二次大戰이 끝나면서 선진국들은 경제개발의 성공으로 많은 富를 축적, 物質的 豊饒를 이룬 결과 개인의 慾求體系와 價値體系에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60년대까지는 개인이나 사회의 富의 척도를 經濟

16) W. A. Stock, M. A. Okun, and M. Benin, "The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Psychology and Aging*, 1986, PP. 91-102.

17) 趙明翰 외, 전게서, 재인용, PP. 64-65.

指標¹⁸⁾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國民總生産(GNP : Gross National Products)의 증진에 온 힘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Donald McGranahan같은 학자는 "GNP는 개인이나 사회의 富 등 量的 기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될지 모르지만, 경제개발에 投入要素로서 機能하는 국민의 행복, 건강, 교육, 營養 등과 같은 社會的 要素를 측정하는 데는 많은 制約이 따른다" 면서 巨視的인 차원에서 統合的인 開發體系 模型을 주장하였다¹⁹⁾.

통합적인 개발체계를 위한 합리적이고도 바람직한 政策手段의 필요성이 적실히 요청되면서 대두된 것이 社會指標, 특히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른바 삶의 質의 指標(QOL Indicators)의 등장이다. 또한 William Nordhaus는 경제지표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GNP를 대신할 指標로 經濟福祉尺度(Measure of Economic Welfare : MEW)를 주장했다²⁰⁾. MEW는 생산보다는 실제소비에 대한 측정을 말한다. 經濟開發은 인간의 복지라는 각도에서 보면 手段이거나 中間財(intermediate goods)에 불과하며, 窮極的 목표는 아니다. 개발의 最終財(final goods)는 인간이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건강, 안녕, 자연환경의 보존, 복지 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이 社會開發(Social Development)²¹⁾이다. 때문에 社會開發은 경제개발을 포괄하는 통합성을 지니고 있다. 社會指標(Social Indicators, 즉 삶의 指標)는 이와 같이 경제, 사회, 환경 지표 등의 적합한 배열의 선택문제에서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탁월성을 지니고 있다.

삶의 質의 지표에 대한 필요성은 일찍이 UN 과 그 專門機關에서 비롯되었다²²⁾.

18) GNP로 대표되는 經濟指標는 美國에서 1932년 경제대공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로서 국민소득회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 개발되었으며, 당시 公私部門에 걸친 경기대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金永燮, 사회개발계획론, 법문사, 1985, PP. 21-22. 참조

19) Donald V. McGranahan, "Analysi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through a System of Indicator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 Social Inform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Philadelphia, Jan. 1971) P.67., 金永燮, 전계서, PP. 21-22.

20) William Nordhaus, "GNP and the Quality of Life", Presented at AAAS Symposium "Can We Develop an Index for Quality of Life", (December 30, 1971).

21) 社會開發은 일반적으로 經濟開發 후에 논의되는 문제로, 공평한 배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정책적 개념을 뜻한다. 따라서 社會開發하면 교육의 기회균등, 취업의 기회와 근로조건, 의료서비스, 보험제도, 공적부조제도, 주택문제, 빈곤문제, 소득의 재배분문제 등을 말한다.

白完基, 행정학(全訂增補版), 박영사, 1993, PP. 501-502.

22) Report on Intern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Standards and Levels of Living no.54, 1V, 5(United Nations, 1954). 金永燮, 전계서, PP.

UN은 사회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그 憲章 제55조에 “높은 생활수준에의 증진과 경제적 및 사회적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라고 표현된 것 처럼 사회개발을 위한 지표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이에따라 UN과 전문기관들은 “生活水準에 관한 國際的 定義와 測定에 관한 報告書”(Report on Intern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Standard and Levels of Living)를 1953년 專門家會議에서 작성하였다. 그후 63-67년 2차에 걸쳐 생활수준의 국제적 計測에 관한 “社會統計의 概要”를, 64년에는 國際勞動機構(ILO), 食糧農業機構(WHO), 世界保健機構(WHO), UN教育科學文化機構(UNESCO)가 협동으로 “生活水準의 조사에 관한 實用的 指針”을 발간함으로써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됐다²³⁾.

최근에는 白堊館에 설립된 國家目標調查委員들은 1976년 미국독립 200주년과 서기 2000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연례 사회보고를 준비하고 사회목표와 지표를 설정키로 하였다.

또한 국제기구인 UN의 社會開發研究院(UNRISD :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는 66년과 70년 양차에 걸쳐 생활수준과 복지에 관한 사회지표를 개발한 바 있는데, 66년에 마련한 단일 생활수준지표는 많은 생활요소의 누락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 됐으나, 70년에 발표된 사회개발지표에는 42개의 요소가 포함됐으며 50여개 국의 생활수준과 복지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社會指標開發運動은 UN機構 못지않게 여러 학자들이 기여한 바도 크다. 60년 중반 이후 Baure²⁴⁾, Biderman²⁵⁾, Duncan²⁶⁾, Gross²⁷⁾, Jones, Flax, Sheldon²⁸⁾, McGranahan²⁹⁾등을 들 수 있다.

경제가 누구를 위한 경제냐에 관한 의문과 반성으로 출발한 美國 Johnson 정부의 “The Great Society”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29-30.

23) Ibid.

24) R. A. Bauer, ed., Social Indicators, (MIT Press, Cambridge Mass., Fourth Printing 1972). 參照.

25) Albert D. Biderman, “Social Indicators and Goals”, Chp. 2, (Cambridge, MIT press, 1966), P. 69. 韓成德, 사회지표의 개념과 활용, (승전대 논문집), 1981, P. 60. 재인용

26) Otis Dudley Duncan, Toward Social Reporting : Next Steps,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1969).

27) Berttam M. Gross, and Michael Springer, “Social Goals and Indicators for American Society”, TheAnnals of the Smerican Ac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2, 373. 參照.

28) E. B. Sheldon and Wibert E. Moore, eds., op. cit., PP. 4-26. 參照.

29) Donald V. McGranahan, “Annal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Through a System of Indicator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c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op. cit., PP. 65-81. 참조.

같다 30).

“ 즉, 도처에 성장과 운동과 변화는 있어도 인간이 설 자리는 어디냐 ? 위대한 사회의 과제는 그들의 개별적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의미있는 기회를 제공할 사회적 구조와 환경과 능력을 보장하는데 있다..... 위대한 사회는 얼마나 ? (how much ?) 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가 ? (how good ?)에 관심이 있어야 하며 상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생활의 質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경제개발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人間生活의 質的 價値(Qualitative Value of Life)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래들어 학자들이나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이 삶의 質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 趙明翰 등은 4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31).

첫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삶의 質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 사회나 국가의 전반적인 기능을 평가, 비교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삶의 質을 평가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집단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나아가서 사회의 불평등을 규명하는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삶의 質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민 및 사회집단의 要求를 예상하고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 것은 국가나 행정기관이 정책을 입안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네째, 삶의 質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들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가 국민과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한 示唆點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Ⅲ. 삶의 質의 接近을 위한 先行研究

1. 包括的 測定手段으로서의 “삶의 質 指標”

삶의 質의 水準을 측정하기 위한 指標開發運動은 최근의 일이다. 指標로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앞서서도 설명한 GNP로 대표되는 經濟指標(Economic Indicators)이다. 그러나 經濟指標로는 인간의 本源的인 욕구인 삶의 質을 평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30) Raymond Bauer, (ed).. Social Indicators, op.cit., p. X11. 김영섭, 전계서, P. 24. 재인용.

31) 趙明翰 외, 전계서, P. 66. 참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社會指標(Social Indicators)이다. 또한 社會指標은 사회의 흐름을 평가하여 인간의 삶의 質을 측정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만 자연 환경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 등장한 것이 環境指標이다. 이렇게 볼 때 삶의 質 指標은 앞에서 말한 경제, 사회, 환경지표 등의 적합한 배열의 선택문제에서 야기되는 어려움을 輕減시켜 줄 수 있다는데 그 탁월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삶의 質의 지표는 이들 개별지표를 從屬指數(subindices)로서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삶의 質의 측정은 하나의 社會的 開發價値와 規範(development value and norms)으로서 開發指標을 통하여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의 시작이다. 그런데 社會開發價値란 한 사회체제가 지향하는 目的價値로서 구체적으로는 規範(norms)과 目的(goals)이다. 社會開發指標란 사회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어떤 규범적인 가치로 慾求水準과 現在狀態 와의 比較表라 할 수 있다. “慾求”란 개인의 끝없는 恣意的인 욕망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기준에 의하여 승인될 수 있는 慾望으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바라는 가?”를 의미한다. “現在狀態(實際)”는 우리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방향이 함축된 현재의 실제상태를 의미한다는 것 33). 이같은 사회지표는 사회발전의 規範的인 目標나 관심의 변화에 따라서 그 지표에 대한 정의나 개념도 달라진다.

이 같이 등장한 사회지표는 사회지표 구성의 準據개념으로서 60년대에는 “生活水準”(Level of Living)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70년대부터는 “삶의 質”(Quality of Life)이란 용어로 操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質 指標은 그 구성방법과 이용의 목적에 따라 크게 主觀的 指標와 客觀的 指標로 구분할 수 있다.

2. 삶의 質의 主觀的 指標의 意義와 調査·測定方法

1) 삶의 質에 있어서 主觀的 指標의 意義

삶의 質에 관한 主觀的 指標(subjective indicator)는 한 국가의 구성원 개개인이 그들의 생활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삶의 조건을 測定하는 것이다. 때문에 主觀的 指標은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목표에 따라서 多樣하고 相對的 이어서 그야 말로 주관적 이다. 주관적인 삶의 質의 지표는 개인의 생활경험과 知覺에서 오는 福祉

32) 김영섭, 후기산업사회의 삶의 質의 문제(제2회 大世학술포럼), 1995. 11. 8. P. 2.

33) Raymond A. Bauer, “detection and anticipation of impact : The nature of the task”, Chp. 1. in Raymond A. Bauer(ed.), Social Indicators, Cambridge : MIT Press, 1966. P. 1. : 尹鍾周, “한국사회의 사회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복지사회의 본질과 구현], 1983, P. 272. 재인용.

(well-being), 滿足感(a feeling of satisfaction), 또는 幸福感(a feeling of happiness), 念願(wish, one's heart's desire), 欲求(wants), 價値(value) 등 主觀的인 느낌에서 오는 생활수준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³⁴⁾. 때문에 개인의 面談(personal interview) 이나, 調査(surveys) 그밖에 개인의 內面的인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調査·測定하여 나온 자료에 기초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反映들은 사회지표의 조사방법에서도 나타난다.

2) 主觀的 삶의 質의 調査·測定方法

主觀的인 삶의 質을 측정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조사방법의 발달로 주관적인 삶의 측면을 조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1) 삶의 質을 개념화하는 방법상의 문제점
- (2)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what to measure)
- (3) 삶의 質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가? (how to measure)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삶의 質을 측정하기 위한 주관적인 記述들은 삶의 質을 “幸福”, “滿足” 그리고 일반적인 부정적 또는 긍정적 감정(negative or positive feeling) 등을 측정하고 있다.

美國人의 삶의 質을 주관적 복지감에 의해 연구한바 있는 A. Campbell은 첫째, 삶의 質을 측정하기 위해 어떻게 概念化하여야 하며, 둘째, 삶의 質의 측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기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³⁵⁾. Campbell의 주장하는 첫번째의 삶의 質을 개념화하는 문제는 곧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가(what to measure)이다. 이에 대해 Campbell은 주관적인 삶의 質은 행복감, 만족감, 복지감, 일반적인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중 행복감 이나, 만족감의 측정방법은 심리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그 측정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복지감이란 단순한 생활경험이 아니라 행복, 비참, 긴장, 만족 및 불만족에 대한 情誼的 印象(cognitive impression)이라는 감정적 느낌을 내포하고 있으며, 삶의 전체 또는 부분적 영역과 관련되어 있고,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장기적 반영이라는 것이다. 또한 복지감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기대감에 영향을 받기도 하며, 개인에 따라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주관적 삶의 質의 指標는 受惠者인 국민의 心的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상태의 개선과는 상관이 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³⁶⁾.

34) 김영섭, 전계서, PP. 3-5. 참조.

35) Angus Campbell,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N. Y. : McGraw-Hill, 1981).

先行研究들에 의하면 福祉의 문제는 상대적인 것이며, 인간의 감정은 환경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urt Lewin은 퍼스넬러티와 行動에 대한 이론서에서 인간의 행태는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기초적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 이론을 전제하면, 인간은 항상 주위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 개인소득의 격차에 대한 만족감은 개인생활의 실제수요에 대한 단순한 느낌이 아니고 이웃, 동료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계층의 貧富隔差에서 오는 소외상태, 직업상의 불만, 범죄에 대한 공포 등은 개인의 주관적 복지감, 즉 삶의 심리적 質을 저하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객관적 지표에 의해 해결할 수 없다는 것.

Campbell의 지적인 두번째의 삶의 質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³⁷⁾. 하나는 삶의 質에 대한 전반적 수준에서 평가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정한 삶의 영역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방법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방법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적 관계 등과 같은 생활영역 별 경험을 구분할 수 있게해주고, 또한 총체적인 삶의 평가 등 두 가지 수준간의 관계를 檢證할 수 있도록 해 주고있다.

이와같이 주관적인 삶의 質의 측정을 위한 조사연구는 우리 나라의 申道澈, 美國의 Campbell 등의 주장하는 바와같이 “삶의 質이란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란 개념 정의에서 엇볼 수 있듯이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주관적인 삶의 質을 조사,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Cantril 과 Roll이 개발한 “自己期待成就를 위한 努力尺度”(self-anchoring striving scale) 技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³⁸⁾. 이 기법은 삶의 質의 측정에 있어서 대중참여를 통한 가치체계 확립의 탐색의 중대성을 인정한 접근방법의 탁월한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다. 측정방법은 “最善의 狀況”과 “最惡의 狀況” 간에 11 단계를 설정해 놓고 개인의 생활경험과 知覺을 통하여 이들 諸段階에 따라서 응답자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개인들 간의 생활경험을 구분해 낼 수 있는 공통의 측정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Cantril과 Roll이 美國人의 삶의 質(美國人의 삶의 質과 恐怖)을 時系列(過去, 現在, 未來)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지난 1971년 개발한 “自己期待成就를 위한 努力尺度” 기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36) 김영섭, 전개논문, PP. 4-5. 참조., “삶의 質이란 국가소득과는 비례하지 않는다. 나라에 돈이 많다고 해서 삶의 質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조선일보, 만물상(1면), 1996. 5. 7.

37) Ibid, P. 238. : 金永燮, 전개논문, PP. 4-5. 참조

38) 金永燮, 사회개발계획론, 법문사, 1985, PP. 42-47. : Albert H. Cantril and Charles W. Roll Jr. The Hopes and Fears of American People(N. Y. : Potomac Associates, 1971), PP. 15-20. 재인용.

〈그림 1〉 Cantril Roll의 尺度와 時系列上的 調査例

< 척 도 >	개인적 희망(%)			
	1959	1964	1971	
-- 10 --	자신의 양호한 健康	40	29	29
-- 9 --	보다 나은 生活水準	38	40	27
-- 8 --	世界平和	9	17	19
-- 7 --	子息에 대한 기대	29	35	17
-- 6 --	幸福한 가정생활	18	18	14
-- 5 --	家族의 건강	16	25	13
-- 4 --	住宅에 대한 기대	24	12	11
-- 3 --	마음의 平和	5	9	8
-- 2 --	富의 所有	2	5	7
-- 1 --	餘暇	11	5	6
-- 0 --	老年期の 행복	10	8	6
	직업과 노동	7	9	6
	就職	5	8	6
	家族에 대한 關心事	7	4	5

資料 : A. H. Cantril and C. Roll, Jr., *op. cit.*, pp. 17~19.

주관적 삶의 質의 중심이 되는 인간적 행복요소를 Rescher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39).

1) 개인적 안녕

(1) 건강, (2) 부·번영, (3) 안전, (4) 자존심, (5) 자기계발, 교육, (6) 지위, 출세

2) 대인관계에서 충족되는 만족감

가) 相互性

(1) 가족관계, (2) 애정, (3) 성적만족, (4) 우정, 동일체감

나) 自己志向

(1) 자기표현, (2) 여가, (3) 취미, 오락

다) 他人志向

(1) 사회적 인정, (2) 타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3) 타인에 대한 적극적 영향력(리더쉽, 권력)

라) 環境的 要素

39) Nicholas Rescher, *Welfare : The Social Issues in Philosophical Perspective* (Pittsburgh :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72), pp. 69-71. : 安秉永 외, 발전행정론(제2 전정판), 법문사, 1988, pp. 270-271.

- (1) 자유, 권리, (2) 개성과 도덕적 가치의 존중, (3) 평등과 사회적 가치의 인정, (4) 사생활의 비밀보장, (5) 미적 환경의 조성, (6) 자연환경의 보존

美國人의 “福祉의 條件”이란 명칭으로 그들의 주관적 삶의 質을 연구한바 있는 A. Campbell은 삶의 영역별 관심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40).

1) 높은 지위의 향유

- (1) 소득의 만족, (2) 교육의 만족, (3) 직업의 만족

2) 결혼상태

- (1) 결혼의 만족(남,녀), (2) 소득, 교육, 연령, 종교, 가족의 배경과 미혼관계의 인지, (3) 자녀의 소유

3) 가족과 친구의 소유

- (1) 가족구성원의 친근도, (2) 친구관계의 만족

4) 일거리의 유무

- (1) 취업중, (2) 직업의 경험, (3) 직업에의 만족도, (4) 해고 및 퇴직상태, 자유 시간

5) 취업여성의 존재

- (1) 여성의 가정취업-가사예의 행복감, (2) 아내로서의 일의 만족-비고용 또는 은퇴

6) 주거장소

- (1) 4개의 지역(city, town, county, community), (2) 이웃에의 만족, (3) 주택에의 만족

7) 美國에서의 생활

- (1) 美國생활에 대한 인지, (2) 정부에 대한 신뢰-공평성과 자유, (3) 美國생활의 만족 또는 불만

8) 수명

- (1) 삶의 주기

9) 개인적 특성과 자아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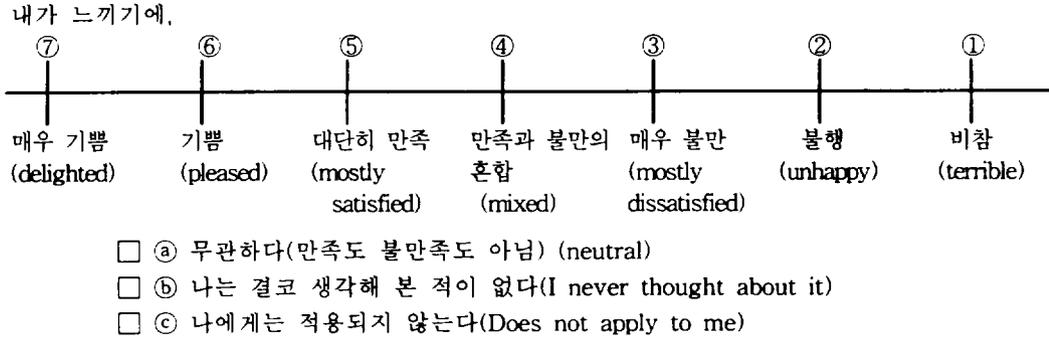
- (1) 가정예의 만족, (2) 자아예의 만족과 개인적 통제

주관적 삶의 質을 측정하기 위해 情的 評價(affective evaluation)방법을 제시한 학자로는 F. M. Andrew 와 S. B. Whthey를 들 수 있다 41). 정적 평가방법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의 정도를 7가지 단계로 표시, 시계열상의 변화추세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림 2)

40) A. Campbell, op. cit., PP. 55-220. 김영섭, 전개논문, PP. 9-10. 참조

41) Frand M. Andrews and Stephen B. Withey,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 American Perspectives of Life Quality(N.Y. :Plenum Press, 1976), P. 18.

〈그림 2〉 情的 評價의 評點을 위해 사용된 範疇



申道澈 교수는 “韓國人の 삶의 質의 大研究”에서 주관적 삶의 質의 평가를 위해 12개의 영역을 설정한 다음, 만족감의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그 平均值를 산출하고 있는데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표 1〉

〈표 1〉 申道澈 교수의 삶의 質 測定方法의 實例

변 수	만족감의 정도			만족감의 평균치	응답자수
	0 전혀 만족하지 않음	5 반쯤 만족	10 완전히 만족		
자녀양육	1.0	19.8	36.9	7.8	1,380
결 혼	3.2	3.9	26.5	7.0	1,391
건 강	4.1	31.8	24.0	6.7	1,415
신 구	7.2	37.2	17.0	6.0	1,394
이 옷	8.9	38.4	17.5	5.9	1,413
집 안 일	5.8	41.7	14.5	5.9	753
주 택	10.3	45.2	12.0	5.3	1,411
직 업	11.9	38.7	11.3	5.2	913
재정형편	11.4	46.5	3.1	4.6	1,409
교 육	16.8	40.4	6.0	4.5	1,402
정 부	16.5	42.1	4.6	4.4	1,403
여 가	19.9	33.7	6.8	4.3	1,393

資料 : 申道澈, 前掲論文, p. 35.

姜東植도 濟州道民의 주관적 삶의 質을 측정하기 위해 관심영역을 14개 영역으로 구분한 다음 만족도를 5단계로 나누어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42). 삶의 14개의

42) 姜東植, “삶의 質과 地域開發政策에 관한 研究-濟州道民의 QOL指標와 公共政策의 連繫分

관심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5단계척도는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제주도민의 주관적 삶의 質의 만족도와 반응분석

점수 설문내용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계 平均點數
	1	2	3	4	5	
주거상태 만족도	11.8 (65)	25.3 (140)	42.5 (235)	15.7 (87)	4.3 (24)	2.755 (551)
이웃관계 만족도	15.0 (83)	42.1 (233)	36.7 (203)	4.3 (24)	1.4 (8)	2.348 (551)
자기의 건강 만족도	21.3 (118)	39.6 (219)	24.1 (133)	10.7 (59)	3.4 (19)	2.347 (548)
금전 및 재정 만족도	4.9 (27)	20.4 (113)	44.7 (247)	16.8 (93)	9.8 (54)	3.064 (534)
결혼 만족도	10.3 (57)	25.7 (142)	14.1 (78)	3.3 (18)	1.3 (7)	(302)
이성관계 만족도	4.7 (26)	11.0 (61)	20.4 (113)	6.1 (34)	5.4 (30)	(264)
자녀성장 만족도	12.3 (68)	22.6 (125)	10.8 (60)	2.9 (16)	0.7 (4)	(273)
직업 만족도	13.4 (74)	28.2 (156)	27.7 (153)	11.0 (61)	3.6 (20)	2.990 (548)
가사업무 만족도	0.4 (8)	6.0 (33)	8.3 (46)	5.6 (31)	0.9 (5)	(123)
친구관계 만족도	28.2 (156)	45.2 (250)	21.3 (118)	3.6 (20)	0.7 (4)	2.026 (548)
여가활용 만족도	6.7 (37)	20.6 (114)	36.0 (199)	22.6 (125)	12.8 (71)	3.145 (546)
행정기관 만족도	3.1 (17)	17.5 (97)	36.5 (202)	25.3 (140)	8.7 (48)	3.208 (504)
자신의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	4.7 (26)	33.6 (186)	47.7 (264)	10.1 (56)	2.4 (13)	2.714 (545)
제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39.8 (218)	35.4 (196)	16.6 (92)	5.6 (31)	2.0 (11)	1.943 (548)

(여기서는 리커트 尺度에 따라 5點 尺度를 이용했는데, 낮은 점수를 매우 행복 하다고 하고 5점에 가까울수록 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으므로 平均點數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표 3> <표 4> <표 5>

〈표 3〉 삶의 영역에서의 중요성 순위

순 위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	삶의 영역에서 덜 중요한 부분
1	자신의 건강상태(20.6%)	여가활용(15.9%)
2	주거상태(14.3%)	주거상태(13.4%)
3	자녀의 성장방식(9.8%)	행정기관과의 관계(10.4%)
4	친구관계(9.6%)	저축 및 재정상태(8.8%)
5	직업에 대한 만족도(8.5%)	이웃관계(8.6%)
6	저축 및 재정상태(7.2%)	가사업무(8.2%)
7	여가활용(6.7%)	이성관계(7.0%)
8	이웃관계(6.3%)	직업만족도(6.8%)
9	결혼생활(6.3%)	친구관계(5.4%)
10	행정기관과의 관계(3.3%)	제주지역(4.3%)
11	이성관계(2.7%)	결혼생활(3.2%)
12	제주지역(1.4%)	건강(2.9%) 자녀성장(2.9%) 기타

〈표 4〉 현 제주지역의 여건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가

평가 여건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균 점수 (5점 척도)
	1	2	3	4	5	
경제적 상태	3.3 (18)	23.9 (132)	45.8 (253)	19.7 (109)	7.1 (39)	3.034 (551)
교통도로여건	4.0 (22)	29.7 (164)	25.7 (142)	24.8 (137)	15.6 (86)	3.183 (551)
교육여건	3.3 (18)	25.3 (140)	40.3 (223)	22.1 (122)	8.3 (46)	3.069 (549)
보건의료여건	2.0 (11)	19.5 (108)	35.4 (196)	30.6 (169)	11.9 (66)	3.311 (550)
문화오락시설	1.3 (7)	8.3 (46)	27.1 (150)	37.3 (206)	25.5 (141)	3.778 (550)
자연환경	41.8 (231)	43.0 (238)	11.0 (61)	2.9 (16)	0.9 (5)	1.777 (551)
공해정도	38.0 (210)	39.1 (216)	15.9 (88)	3.8 (21)	2.2 (12)	1.920 (547)
지역정책에의 주민 참여도	1.4 (8)	11.0 (61)	37.8 (209)	32.5 (180)	15.7 (87)	3.508 (545)
사회적안정성	2.9 (16)	13.6 (75)	32.7 (181)	29.1 (161)	21.5 (119)	3.529 (552)

〈표 5〉 제주지역주민들이 보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 공개성,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

평가 항목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균점수
	1	2	3	4	5	
행정의 신뢰성	3.4 (19)	14.1 (78)	48.6 (268)	28.3 (156)	5.6 (31)	3.185 (553)
행정의 공개성	1.6 (9)	8.5 (47)	31.6 (175)	34.9 (193)	22.6 (125)	3.689 (549)
행정 정보 접수 빈도	4.7 (26)	21.3 (118)	26.0 (144)	26.2 (145)	21.5 (119)	3.386 (552)
지방자치에의 기대	9.2 (51)	46.8 (259)	32.4 (179)	9.0 (50)	1.8 (10)	2.470 (549)
독자적개발 기대	15.9 (88)	43.9 (243)	26.6 (147)	9.8 (25)	2.9 (16)	2.392 (548)

3. 삶의 質의 客觀的 指標의 意義와 調査. 測定方法

1) 삶의 質에 있어서 客觀的 指標의 意義

삶의 質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objective indicators)란 사회에 실존하는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 자연환경 등 개별적인 모든 자료(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각종조직체의 객관적인 자료 등)는 객관적인 삶의 質을 측정하는 자료가 된다.

2) 삶의 質에 있어서 客觀的 指標의 調査. 測定方法

객관적인 지표는 자료수집 등과 같은 편의한 점은 있으나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이 상존하고 있다. 순기능적인 측면으로서는 자료를 손쉽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지역간, 부문간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시계열상의 분석이 가능한점 등을 들 수 있다. 역기능적 측면은 이러한 객관적 자료들이 제공하는 상황이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만족한가 여부를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경제성장의 경우 인간의衣食住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증가시키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정부기관에 의한 자원배분이나 시설의 제공 등이 국민들의 욕구나 관심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美國 피츠버그 대학의 N. Resher 교수와 시카고 대학의 T. Smith 교수가 1979년 美國인의 "幸福感"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45-79년까지 美國 가정의 실

질 소득이 70%나 증가했으나 “幸福하다”는 국민은 그전 40%에서 30%로 오히려 10%나 줄어들었다는 것 43).

또한 미국의 마이어 박사(행복의 추구저자)는 美國의 상류층과 하류층을 대상으로 “돈과 행복감”에 대한 조사결과 “돈이 많을 수록 幸福感은 反比例 한다”는 이색보고서를 내놓았다 44).

다음은 조선일보에 게재된 내용이다.

“----略,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할까?-----사람이 느끼는 행복과 돈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행복해지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양은 점점 줄어들다는 것.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인구를 경제력에 따라 4등분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가장 가난한 집단중에는 72%가 삶 전반에 대해 “만족” 혹은 “대단히 만족”하다고 느끼는 데 비해 가장 부유한 집단중에는 불과 14%만이 삶에 대한 만족을 표했다. ---마이어스 박사는 돈과 행복간의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는 또 다른 증거로 지난 1957년과 1990년의 구매력을 비교했다. 그동안 美國의 보통 사람들의 구매력은 2배가 됐는데 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거의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 돈이 행복을 느끼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돈은 힘을 막강해진 것 같은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의 행복은 그 같은 힘보다는 개인적인 관계, 자기자신에 대한 느낌, 그리고 정신적인 면등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

또 하나의 예로는 1976년 美國 미드웨스트 연구소(Midwest Research Institute)가 미국내 대도시 시민들의 객관적인 삶의 質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책임자로는 Ben-Chieu Liu가 맡았다 45). Liu는 미국의 대도시지역의 시민들이 객관적인 삶의 質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치(범죄율 등 19개 변수), 경제(개인당 소득율과 실업율 등 18개 변수), 교육과 건강(유아 사망율과 성인 대학교육 등 13개 변수), 환경(자연보존 등 17개 변수), 사회적 측면(노동

43) Tom Shith, “Happiness : Time Trends, Seasonal Variations, Intersurvey Differences, and other Myste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1979), P. 28.
하재구, 서울시민의 삶의 質의 실태와 시정부의 공공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6. PP. 14-15.

44) “돈 많을 수록 행복감 반비례”, 조선일보, 1992. 6. 22. (16면).

45) Ben-Chieu Liu,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U. S. Metropolitan Areas a Statistical Analysis(New York : Prager Publishers, 1976), PP. 53-207.

자의 노동참가율과 주택차별지수 등 48개 변수) 등 5개 영역에 115 가지의 변수를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환경에 있어서 무엇이 좋은가? (what is good?)라는 객관적인 삶의 質을 측정하는데 실패하였는 데, 그 원인은 인간의 가치 판단의 문제는 오직 인간의 본능(humam nature)과 가치판단에서만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⁶⁾.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삶의 質 測定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여건과 복지감 사이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객관적인 경제지표나 사회지표를 활용한 국가의 정책형성이나 계획은 삶의 質을 향상시키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의 활용문제는 계속 연구과제로 남는다.

삶의 質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技法들이 많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부터로 보고있다. 특히 社會工學的 기법을 이용한 이론적 연구의 성과는 삶의 質의 計量的 측정과 이것을 통한 最適資源配分計劃의 수립이 P. W. House 박사에 의해 시도되었다⁴⁷⁾. House 박사는 삶의 質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영역으로 환경, 정치-사회, 경제 등 3개 분야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의 변수로서 물, 소음 등 14개, 사회-정치의 변수로는 안전, 정의 등 12개, 경제의 변수로는 생계비, 소득배분, 레저 등 8개, 전영역에 34개의 변수를 설정하고, 삶의 質을 측정하기 위한 관계공식을 만들었다⁴⁸⁾.

House 박사의 삶의 質 측정을 위한 公式은 다음과 같다.

$$\text{삶의 質의 指標(QOL Indicators)} = \sum_{i=1}^n W_i (I_i)$$

(W는 指標(I)에 의하여 표현된 QOL의 구성요소가 되는 社會로부터 유래하는 優先選擇機能, 즉 加重值를 의미하고, I_i 는 QOL의 단위지표인 個別指標를 의미한다.)

가) 美國의 例

美國의 경우를 보면 삶의 質에 관한 연구는 1972년 環境保護廳(Environmental

46) 이같은 체계적연구는 在美학자인 趙鏞孝 교수의 논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Yong H. Cho and Redburn F. Stevens, "Public Policy and Quality of Community Life in American Cities : A Search for Linkag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5, (4) , PP. 455-456. 참조

47) Peter W. House, "How Do We Know Where We Are Going", presented to a Seminar on Multiple Criteria Decision-Making at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6-27 October 1972). (mineo).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金永燮, 社會開發計劃論(법문사), 1985. PP. 346-353. 을 참조할 것.

48) 김영섭, 전계서, PP. 348-349.

Protection Agency : EPA)에 의하여 삶의 質 개념의 발전하였는 데, 삶의 質 구성요소를 경제, 정치, 보건 및 자연환경 등 3 부문으로 대별하고 그 밑에 총 30여개의 요소와 하위요소(sub-factor)로 분류하였다. 그 보다 1년 앞선 71년 연방예산국 예산관리실(Office of Management & Budget : OMB)에서 출간한 [白堊館 青年問題會議 報告書](The Report of the White House Conference on Youth)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삶의 質을 포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9).

- (1) 자연환경 : 자연미와 야생생물의 보존 및 일상적으로 황폐하지 않는 돌과 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보존.
- (2) 생활환경 : 도시, 교외, 시골생활 및 노동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유지, 청결한 공기와 물, 용지, 일반위생 및 보건, 주택 및 건물의 안전, 건축과 도로의 미관에 대한 최저조건의 유지.
- (3) 일반보건 :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유지, 충분한 건강보호, 청소년을 위한 철저한 의료시설.
- (4) 소득과 기본적, 경제적 안녕 : 개인의 경제적 착취의 최소화, 최저보장생활수준, 공평한 부의 분배와 향상된 경제상황을 추구하기 위한 지속적 기회.
- (5) 고용과 생산성 : 공평한 부의 분배와 향상된 경제상황을 추구할 수 있는 지속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생산적 기회를 위한 전반적 대비.
- (6) 총경제진보 : 소극적 및 예방적 생산(예컨데 매연통제고안)과 환경의 위해관계 경비를 고려한 사회적 총경제생산.
- (7) 연수, 교육 및 교양 : 이용할 수 있는 기술, 문제해결능력 및 세계의 가치관을 습득하는 기회.
- (8) 위협과 강제에 관한 정의와 자유 : 위해 혹은 안녕을 위협하는 요소의 최소화, 사회와 개인간의 상호관계작용에서 행해지는 부정적 制裁에 반하는 긍정적 범위의 확대.
- (9) 개인주의 : 자유로운 표현, 생활형태(life style)의 선택을 위하기회, 사회적 관용과 소외의 수준.

이러한 8개 영역별 기준들은 경제, 사회, 환경의 3 가지 지표의 영역들 중의 하나로 범주화 할 수 있으며,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할 것이다.

나) 國際機構의 例

또한 國際協力開發機構(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49)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Quality of Life Indicators op. cit., P. 57.
참조 : 김영섭, 전제서, PP. 41-42. 참조

Development : OECD)는 삶의 質의 주요 영역을 8개로 구분하고, 그 밑에 23개의 주요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50).

- (1) 건강 : 신체적 정신적 질병율의 감소, 건강보존상태의 개선.
- (2) 인격발전과 학습을 통한 지적, 문화적 개발 : 사회내에서 개인의 발전과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 능력, 사고력을 모든 아동들에게 전달, 기초교육후에 학습하고 계속 자기 개발하는 인구의 증가, 학습과정과 자기발전이 개인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이 되도록.
- (3) 노동과 노동생활의 질 : 노동을 원하는 모든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동기회, 노동생활의 질적개선, 노동생활이 개인에게 기쁨을 선사하도록.
- (4) 시간예산과 자유시간 : 개인적 시간예산의 변화, 자유시간의 활용가능성의 개선.
- (5) 재화와 용역의 처분 : 재화와 용역에 대한 개인적 처분가능성의 제고, 경제적 곤란을 겪는 자의 수적 감소, 소득 및 재산배분의 변화, 재화 및 용역의 공급분에 따른 개인적 만족의 증가, 경제위기에 대한 개인과 가계의 보다 나은 보호.
- (6) 물리적 환경 : 주거환경의 개선, 공해의 감소, 휴식과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한 환경자원의 증가.
- (7) 개인적 자유권과 법률제도 : 폭력, 범죄, 강도의 감소, 법 앞에 만인의 평등.
- (8) 공동체내에서의 생활의 質 : 사회적 이동성과 이동기회의 증가, 계층적 차이의 감소와 소수집단의 고립의 감소, 공동체내의 인간관계의 질적 개선.

또한 우리 나라의 사회지표작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 UN 社會開發機構(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UNRISD)는 지난 1954년 [생활수준 및 생활수준의 정의와 측정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삶의 質"의 구성요소로서 12개의 분야를 선정하고 있다 51). 그런데 이 보고서는 삶의 質의 구성요소로서 (1) 건

50) Rudolf Werner, Soziale Indikatoren und Politische Planning(Hamburg : Rowohlt Taschembuch Verleg, 1975), ss. 95-96. 안병영 외, 발전행정론, 법문사, 1988, PP. 249-250 재인용.

51) 우리 나라에서 사회지표를 개발한 것은 1967년 보건사회부 산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 삶의 質 측정과 더불어 사회개발의 내용을 확충시키겠다는 의지아래 사회지표 작성에 관심을 가져으며, 주로 UN 사회개발기구의 사회지표 모형에 따라 개발, 1968년에 [사회개발 제1집 : 기본구상]이 출간됐다. 사회보장심의 위원회, [사회개발계획] 제2집, 1970, 제3집 1973년, [사회개발 : 부문별사업전망], 참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들 보고서가 현실적으로 사회지표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지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사회개발"이라는 이름아래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UNRISD, Reporting on the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Standards and Levels of Living No. 4, (New York : 1954). : Jan Drenowski,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 of

(2) 식량 및 영양, (3) 교육, (4) 노동조건, (5) 고용상태, (6) 총지출 및 총저축, (7) 수송, (8) 주택, (9) 의료, (10) 여가이용 및 오락, (11) 사회보장, (12) 인권으로서의 자유 등 이다. 여기서 생활수준의 개념은 단위시간에 인구가 향유한 재화와 용역의 흐름의 결과로 얻어진 그 인구의 필요에 대한 만족의 수준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생활수준지수는 복지의 흐름을 측정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UNRISD의 삶의 質의 접근방식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欲求, 즉 인간욕구(human needs)를 (1)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최소한 요구되는 기본적, 물리적 욕구(basic physical needs), (2) 물리적 욕구를 넘어서 문화적 욕구(basic cultural needs), (3) 물리적, 문화적 욕구를 넘어서 인간생활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고차원적 욕구(higher needs) 등 3 개의 분야로 분류고 각 영역마다 지표를 설정하여 삶의 質을 측정하고 있다.

UN은 삶의 質의 문제를 人間安保(Human Security)라는 용어로 조작 사용하고 있다 52). 1995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막된 사회개발정상회의는 53) "인간이 최소한 영위해야 하는 삶의 質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衣,食,住라는 기본생활의 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비롯한 정치적 권리, 고용 및 소득확보를 포함한 경제적 안정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 이를 주장하게 된 이유는 美,蘇의 冷戰終熄으로 사회적 발전을 약속하는 도약대로 기대됐으나 오히려 국가와 국가간, 국가내에서 등 종교, 계층적 사회적 불평등만 노출, 갈등과 마찰이 확대 재생산되는 "차가운 평화"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빈곤과 실업의 증가 이에 따른 불안감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을 제거하지 않는 한 진정한 국제평화와 안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구상 인구의 5명중 1명(약 10억명)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며 매년 1천3백-1천 8백만명이 빈곤이 원인이 되어 죽어가고 있다. 절대 빈곤층의 숫자도 앞으로 60년 안에 4배로 늘어나 빈곤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세계화·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같은 현상은 점차 국제적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밀매, 이주노동자 문제 등 각국간 상호협력의 필요한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공동 노력을 통해 인간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공동체 인식에서 삶의 質 대신, 人間安保라는 용어를 조작하게 된 것이다.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10개항의 공약과 행동계획을 포함한 코펜하겐 선언을 채택했

Living and Welfare. (Geneva : UNRISD, 1970), PP. 37-38. 姜東植, "사회지표의 개념과 체계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논문집(제31집), 1990, pp. 483-485. 참조

52) UN은 지난 1994년 "人間開發報告書"에서 삶의 質을 人間安保라는 용어로 조작 사용하고 있다. "빈곤, 범죄 세계적 차원 해결", 中央日報, 1995. 3. 6 (5면), 참조

53) UN 사회발전 정상회의에는 184개국에서 120여명의 정상급 인사와 정부대표, 3천여개의 비정부기관 대표 1만여명이 참석했던 세계적 대회였다. 중앙일보, 1995. 3. 6. (5면), 참조.

는 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54).

- (1) 국제사회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법적 환경을 창조한다.
- (2) 인류의 윤리, 사회, 정치, 경제적 의무로서 단호한 국가단위의 행동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의 빈곤을 근절한다.
- (3) 경제, 사회적 정책의 우선사항으로 완전고용의 달성을 촉진하며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생산적인 직업과 일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한다.
- (4) 불우하고 약한 단체와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참가와 안전, 단결, 기회의 평등, 다양성 존중, 관용, 무차별, 모든 인권의 존중과 촉진에 기초한 정의롭고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
- (5)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완전한 존경을 촉진하며, 남녀의 평등을 실현하며, 정치, 사회, 경제, 시민, 문화적 생활과 발전에서 여성의 지도적 역할과 참여를 인정하고 촉진한다.
- (6) 기본적 의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접근과 정신, 육체적 건강에 대한 최상의 표준, 그리고 質 높은 교육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기회를 촉진하고 달성한다.
- (7)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 인적자원의 발전을 촉진한다.
- (8) 구조적 조정계획을 수립할 때 빈곤의 근절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사회적 통합의 촉진이라는 사회발전 목표를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 (9) 정상회의의 목표를 달성위하여 국가별 행동과 지역, 국제적 협력을 통해 사회 발전에 할당된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을 증대시킨다.
- (10) 동반자 정신아래 UN이나 다른 다자간 기구를 통해 사회발전을 위한 국제, 지역, 소지역적 협력의 틀을 개선하고 강화한다.

코펜하겐 대회는 "인류의 행복"을 논하는 지구 최대의 회의였다고 평가받는 것 처럼 이처럼 포괄적인 경제, 사회문제를 다루기는 처음이다. 특히 이번 대회의 3 가지 핵심의제는 1) 빈곤퇴치, 2) 고용증진, 3)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 였으며, 지속가능한 인간발전(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55) 이라는 용어의 매력에 있다할 것이다.

54) 김동배, "코펜하겐 선언과 사회개발의 방향", 자치행정, 1995. 5월호, 참조

55) 1995년 3월 6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社會發展 頂上 회의에서 定義한 人間發展의 概念은 경제성장을 도모하되 그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며, 환경을 보호하면서 발전하자는 새로운 발전 paradigm 이다. 즉 경제발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사회발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다) 韓國의 例

우리 나라의 경우 객관적 삶의 質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통계청이 발간하고 있는 [韓國의 社會指標]가 있다 56).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안녕감 등 4 가지의 주관적 지표도 포함되어 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전국의 인구 및 주택 센서스를 통해 얻은 자료를 정리하여 매 5년마다 사회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지표를 통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 만족감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주관적 삶의 質을 측정하는 데 代用置(surrogate measure)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1995년 3월 삶의 質을 높이는 세계적 전략으로서 기본 원칙과 중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57).

기본 원칙으로는 1) 최저 수준보장의 원칙, 2) 생산적 복지의 원칙, 3) 공동체적 복지의 원칙, 4) 정보화 효율화의 원칙, 5) 안전 중시의 원칙 등 5 가지이다. 이는 국민 최저수준 이하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에 대하여는 국가가 책임지며, 사후적 복지가 아니라 예방적 복지여야 하며, 소비적 복지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오염, 범죄, 마약, 불량식품, 부실공사 등 생활의 안정과 안전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 국민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6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을 위한 公的扶助의 확대, 2) 노인복지의 확충, 3)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확대, 4)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5) 사회안전체계의 확립, 6) 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 등 이다.

최근들어 삶의 質에 대한 객관적 접근은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국책 연구소, 민간 기관 및 단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언론기관인 중앙일보는 95년 1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통계자료를 이용, 전국 74개 도시를 대상으로 국민의 삶의 質에 대한 대규모 비교평가를 실시했다 58). 중앙일보가 都市 주민의 삶의 質을 비교하기 위해 개발한 평가모형은 1) 건강한 생활, 2) 안전한 생활, 3) 교육복지, 4) 경제생활, 5) 편리한 생활, 6) 문화생활 등 6개 부문에 36개 세부항목을 설정하였다.

56)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5. 한국의 사회지표는 1978년 350개 지표를 최초로 체계화 한 후 79년에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최초로 공표한 후, 80년 151개, 81년 166개, 82년 177개, 83년 187개, 84년 198개, 85년 208개, 86년 215개, 87년 224개의 지표를 발표했다. 또한 88년부터는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표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이 체계화하여 243개, 89년 252개, 90년 262개, 91년 272개, 92년 275개, 93년 286개, 94년 291개, 95년 290개 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57) 김동현, "후기산업사회의 삶의 質의 문제" 1995. 11. 18. 대세학술포럼, PP. 8-9. 참조.

58) 中央日報, 전국 74개 市 비교평가 자료집-"삶의 質" 입체분석-1995. 1.

IV. 結 論

인간은 누구나 행복, 즉 삶의 質을 추구하며 살아 간다. 이 같은 삶의 質의 개념 요소에는 幸福感, 士氣, 滿足感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삶의 質을 평가하는 데는 개인의 심리상태 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때문에 삶의 質의 개념 정의와 접근방법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삶의 質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는 포괄적으로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이를 좀더 구체화한 Diener의 정의와 같이 1) 외적 기준이나 조건으로, 2) 개인 자신의 삶에 대해 내리는 認知的 평가로, 3) 개인의 정서적 측면 등 3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삶의 質을 人間安保 혹은 人間發展으로 조작,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삶의 質이란 인간의 본원적 욕구인 의·식·주를 해결한 후를 전제로 한 시간적, 공간적으로 充足된 심리상태를 말하고 있다. 즉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을 말 한다 할 것이다. 이는 Campbell, 申道澈 등도 동의하고 있다. 또한 Bradburn도 삶의 質이란 “부정적인 감정 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우세한 심리상태”로 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삶의 質 또는 幸福은 주관적이라는 것, 삶의 質은 인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반영한다는 것, 삶의 質의 핵심은 개인의 삶에 대한 통합적 판단에 의해 개념정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Galbraith의 주장과 같이 “경제성장의 척도는 얼마나 생산하는 가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활이 견딜만 한가 또는 생활에 즐거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 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 과 같이 경제개발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人間生活의 質的 價値, 즉 얼마나 많이(how much)가 아니라, 얼마나 좋으나(how good)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삶의 質의 調査, 測定方法으로는 중요 구성요소를 설정한 다음 구성요소의 하위변수를 선정 측정하여 사회조사방법에 의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삶의 質의 중요 要素로는 주관적 측정의 경우 만족감, 행복감, 안전, 안정감 등이며, 객관적 요소로는 소득, 생활환경, 자연환경, 보건, 교육, 문화생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인은 누구나 뚜렷한 삶의 목적, 가치관 등을 가지고 있어 개인마다 욕구체계와 가치체계가 다르며,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모든 정책, 특히 삶의 質과 관련이 있는 제반의 복지, 환경, 교통, 교육, 경제정책 등은 구성원의 소망과 욕구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즉 수혜자의 마음과 눈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삶의 質의 측정은 주관적 측정을 바탕으로 하되 객관적인 안목에서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